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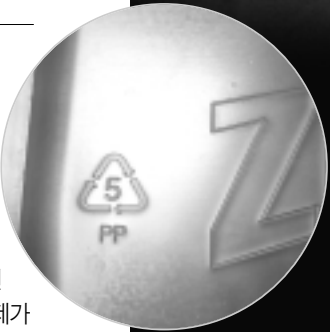


플라스틱 제대로 쓰면 안전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찜찜하다. 집안 곳곳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주부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플라스틱에서 유출되는 환경호르몬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는 방송 보도 때문이다. 용기 제조업체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므로 문제없다"고 하고(한국플라스틱주방용품공업협동조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현행 기준규격에 적합한 플라스틱 용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걱정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 유해 논란 속에서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편은 단 하나. '바로 알고' 쓰는 것이다.



걱정만 하지 말고 꼼꼼히 살피세요



▶ 환경호르몬 아세요?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도 한다. 이름 그대로 우리 몸속에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물질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환경호르몬은 생식기 기형, 정자 수 감소, 성장 지연, 면역기능 이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남성 불임이 증가하고 소아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환경호르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쓰레기를 태우면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수은이나 카드뮴·납 등의 중금속, 농약이나 살충제 성분, 플라스틱 등이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는 물질들이다.

지난해 TV 프로그램 'SBS 스페셜'이 플라스틱에서 흘러나오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남자 아이들을 여성화시키고, 여자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바이오텔러링협회에서는 "프탈레이트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축적되지 않고 신체 내에서 빠르게 화학작용을 일으켜 배설된다"며 무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인 하나코비 역시 "공기나 물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극히 미량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을 놓고 마치 플라스틱 용기가 환경호르몬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플라스틱에도 종류가 있다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은 재질은 아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으로는 수도 배관·비옷·샤워 커튼·포장용 필름 등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젓병이나 음료수통·헤어드라이기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PC), 반찬용기 등의 주방 용품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폴리프로필렌(PP) 등이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유해 물질 발생 기준으로 만든 플라스틱 피라미드의 맨 위는 폴리염화비닐(PVC)이 차지해 가장 유해한 물질로 꼽히고 다음이 폴리카보네이트(PC, PET), 폴리프로필렌(PP) 순이다. 바이오 처리된 플라스틱은 미생물 분해가 가능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환경호르몬 불임·소아암 발생에 영향

재질 표시 잘 살펴야... PP제품 가장 안전 가열 말고 끓인 물에 20초 정도 담가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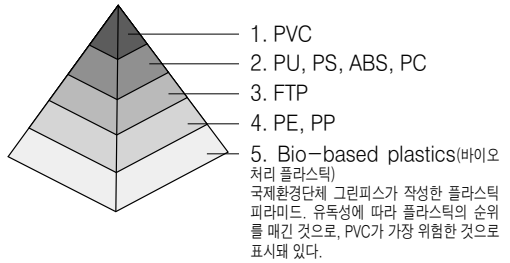
▶ 플라스틱 용기 안전하게 쓰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질은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이다. 흔히 PET(피이티)라 부르는 음료수통이나 아기 젓병, 주방 용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열을 받으면 '비스페놀A'라는 환경호르몬을 배출한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제품'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보통 플라스틱 제품에는 재질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라.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

하다고 알려져 있는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폴리카보네이트(PC, PET) 제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물에 넣고 삶는 등 열을 가하게 되면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삼간다. 뜨거운 음식을 자주 담아야 하는 그릇이라면 유리나 도자기로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 찬 음식이라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환경호르몬은 기름에 용해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기름을 담은 병은 유리병을 권한다. 젓병 역시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지 말고, 소독할 때는 물을 끓인 후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20초 내외로 담가 소독한다.

음료수 캔의 내부 코팅제에도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뜨겁게 데워 먹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또한 찌그러진 캔을 누르거나 통조림도 피하는 것이 좋다. 생수용기인 PET 역시 사용을 줄이고, 구입한 제품은 재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buddhapia.com



인류 문화속의 茶

22. 사천의 다관(茶館)

낮선 곳에 막 도착한 여행자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숨결이 진하게 배어 있는 삶 자체가 생동하는 장소일 것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다. 그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생산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일찍이 중국사회의 차 문화를 선도해온 문인 계층은 위로는 벼슬에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고 아래로는 서민과 상인의 중간 계층으로 사회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당나라 때부터 규모를 갖추기 시작한 다관(茶館)은 청 말(淸末)에서 민

가 힘든 지역으로 "머리위에 맑은 하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다관 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느 곳에서 다원이 있다. 심지어 다원에서 세수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차 마시고, 아침을 먹고,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경극을 보며 일상적인 생활을 즐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정보를 얻고 자신을 알리고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차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얻는 장소였다. 전문적으로 상인이 물건을 거래하며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책을 보면서 토론하고 시상을 떠올리며 공연을 보는 서차관(書茶館)이 있고, 문인들은 글을 쓰고 그림을 감상하

대화 인간관계 형성 정보교류 등의 장소 역할

민간 문화와 결합 중국의 일상적 차문화 형성

국(民國) 초(初)에 가장 많이 형성됐다.

중국 사천의 한 도교 사원, 정리 되지 않은 사원 앞마당에 30도가 넘는 기온에서 이글거리는 차를 끓여주는 수 십 개의 붉은 솥대가 눈에 들어오고 그 옆 다원(茶園, 혹은 茶館)에는 남 녀 노소 할 것 없이 마작을 하며 즐겁게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향명(香茗)이라는 다원의 글씨, 작은 나무 탁자, 등받이가 있는 대나무 의자 이외, 별 다른 다구(茶具) 없이 유리컵 혹은 도자기 잔에 차를 넣어 뜨거운 물을 첩첩 넘치게 부어 놓은 차반이었다. 차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듯, 10위엔(圓)부터 고급 차는 상당히 비쌌다.

다, 도교사원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치열함과 대조적으로 나른하기까지 한 다원(茶園)의 풍경은 한때 전성기를 이루며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던 변화했던 장소와는 다른 풍경이었다. 지금 사람들에게 다원(茶園)은 음식, 마작 등 여가를 즐기는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사천지역은 본지이다. 해를 보기



사천의 다관 풍경

며 여행자들이 경치를 감상하는 야차관(野茶館)이 있다.

1934년 북경시 상무회에 등록된 다점(茶店)만도 100개가 넘었으며 차를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도 10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다점들은 생산된 차를 다관에 공급하는 것 외에 시민들의 차 수요를 공급하는 장소였다. 다관은 차와 곡예, 시화, 희극 등 민간 문화 활동과 결합하여 독특한 다원 문화를 형성하여 중국의 일상적인 차 문화를 만들었다.

물론 민국이후 다관에서 차를 마시는 개개인의 손님은 줄어들어 주로 연극하는 장소로 바뀌지만 처음으로 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교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 안에는 경극(京劇), 평극(評劇), 화극(話劇) 등이 공연되었으며 사람들이 친밀함과 상호 화합을 가지고 동료 화합(同胞 和合)의 정신을 찾았다. 노사(老舍)의 극작 <다관(茶館)>은 당시 사회의 축소판으로 다양한 인물을 통하여 청말 민국초 북경 다관 문화의 한 측면을 잘 반영한 것이었다. ■ 이창숙(동아사이언스 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하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증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의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명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화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